# **EMERICs** 이슈분석



나이지리아 | 아프리카·중동

## 나이지리아-중국 맘빌라 수력발전소 건설 합의

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

## 

-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7년 9월 14일 그동안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3.000MW 규모의 타라바주(州) 맘빌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중국 국영건설회사 컨소시움을 통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.
- 현재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테러 및 분리주의 운동 격화, 리더십 공백 사태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으며 경기부양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.
- 현재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는 매우 높은 편이나 중국의 진출사례를 고려했을 때. 장기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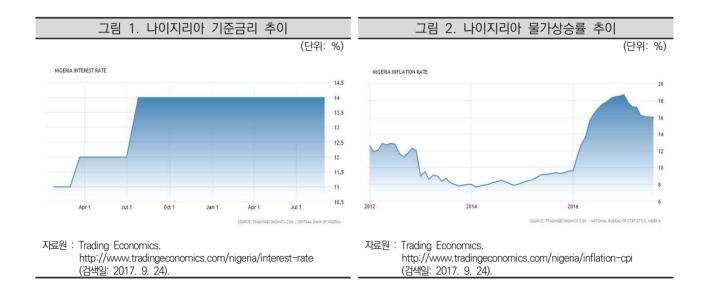
## 1. 이슈 현황

- ▶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7년 9월 14일 그동안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3,000MW 규모의 타라바주(州) 맘빌 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중국 국영건설회사 컨소시움을 통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.1)
  - □ 맘빌라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1985년 2600MW 규모로 처음 계획되었으나 그동안 재원조 달 문제로 여러 차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해왔음.
    - 이번 합의는 작년에 있었던 부하리 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문제가 되었던 재원부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음.
    -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입 은행이 공사비용의 85%를 대출해주고 나머지 15%만 정 부재정에서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

## 2. 원인과 분석

▶ 현재 나이지리아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테러 및 분리주의 운동 격화, 리더십 공백 사태<sup>2)</sup>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으며 경기부양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.



- □ 나이지리아 정부는 높은 물가문제로 인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저유 가 충격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어 공격적인 재정확대도 어려운 상황임.
  - 나이지리아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리더십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요구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.
  -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% 이상이 전기사용에서 배제되어 있음.
- □ 중국은 정상외교 등 자국의 외교역량을 활용하여 케냐 등 아프리카 각국에서 철도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발전부문도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핵심 전략부문으로 다뤄지고 있음.
  -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취임 후 아프리카 30개국 이상을 방문하였으며, 올 1월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동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400억 달러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
## 3. 전망과 시사점

▶ 현재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진출 리스크는 매우 높은 편이나 중국의 진출사례를 고려했을 때, 장기적인 접 근은 여전히 유효함.

<sup>2)</sup> 현 부하리 대통령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차례 지병치료차 영국에 150일 이상 머무른 바 있음.

EMERICS LIST NEW STATES

### 나이지리아 | 아프리카·중동

- □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역사는 과거 서구 식민종주국에 비해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왔음.
  - 중국은 2000년대 들어 '중-아프리카 협력포럼'을 정례화하며 본격적으로 대 아프리카 관계를 강화해왔음.
  - 최근 중-아프리카 관계는 정치, 문화교류, 개발원조 등의 정치, 외교적인 협력관계를 넘어 무역, 투자분야의 명실상부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 중국 의 지배적 위치가 강화되고 있음. **EMERICs**

#### 참고문헌

- Esi-africa news, Trading economics 등

### ₽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